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배론 : 공적 예배에 관한 사상을 중심으로

한동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초록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배론은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 꾸준히 목회 사역을 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소고는 에드워즈의 공적 예배 신학에 집중하되, 예배의 본질, 예배의 방식과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 등을 차례로 논의한다. 에드워즈의 원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에드워즈 예배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에드워즈는 청교도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이 사상을 예배론과 연결한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창조와 새 창조에 근거를 두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에드워즈의 공적 예배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으며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으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린다. 셋째, 에드워즈는 성경과 상식에 근거하여 공적 예배를 순수하게 보전하려 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잉글랜드 국교회의 예전적 요소들을 거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배의 질서를 위해 일정한 순서와 장소를 인정했다. 넷째, 에드워즈는 예배자의 자세에 관련하여 외적인 예배 행위나 규례보다 내적인 예배의 영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의 공적 예배 신학은 거룩한 성도의 삶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사적 예배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단어

조나단 에드워즈와 예배, 예배의 본질, 예배 형식, 예배자의 자세

1. 서론

2020년 초 코로나19가 급습한 이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교회는 공적인 예배와 관련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예배 참석 인원이 달라졌고, 온라인 매체를 사용한 비대면 예배 방식이 점차 익숙해졌으며, 예배 중에 대체로 성찬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기간이 곧 끝나기를 바라던 첫 기대와는 달리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회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과연 공적인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한국기독교인론포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2021년 8월 13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¹⁾ 응답자 중 14.5%가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참석하겠다고 응답했고, 현장 예배에 출석하겠다는 교인은 77.6%에 머물렀다. 더욱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 중계를 하지 않는다면, 중계를 하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3.4%나 되었다. 그뿐 아니라, 주일성수에 대한 인식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주일성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66.3%나 되었다. 목회자들은 이런 상황을 염려하며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예배의 본질을 성도들에게 고취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1) 최승현, “교인 48% ‘온라인 교회 만들면 참여’...목회자 60% ‘온라인 교회 인정 못 해’”, 뉴스앤조이 2021년 8월 20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22>.

역사적으로 중요한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한국교회가 예배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그 동안 여러 학회와 글들을 통해 수많은 주장이 개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 위에 본 소고가 또 하나의 연구를 추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이 비단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예배 방법 구상이라는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앙이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개혁과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그중에서도 청교도적 개혁주의 정신으로 신학하며 목회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과 사역으로부터 적지 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예배에 관한 에드워즈의 사상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드워즈가 예배에 관한 독립적인 논문이나 책을 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가 30년 가까이 지역교회와 선교현장에서 목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예배론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에드워즈의 예배론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안덕원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배관과 21세기 한국교회예배”다.²⁾ 이 글에서 안덕원은 에드워즈의 예배론을 예전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설교, 성례, 안수, 금식 등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한국교회 예배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 이후 에드워즈의 예배를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유일한 단행본은 테드 리베라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배론』(Jonathan Edwards on Worship)이다.³⁾ 리베라의 책은 서론에서 청교도들의 예배와 에드워즈의 예배 사상을 매우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본문에서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요소로서의 자기점검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예배에 관한 에드워즈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이 중에서 공적인 예배에 관해 리베라는 간략한 서론과 함께 공적 예배의 요소 중에서 설교, 공적 기도, 성례, 권징,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특별 기도와 감사의 날 등에 대해 차례로 논한다. 따라서 에드워즈의 예배론에 관한 개론서로서 가장 손색이 없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각각의 관점에서 에드워즈의 예배관을 서술하지만, 예배의 본질과 공적 예배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깊이 논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그 이후 에드워즈의 예배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매튜 레일리(Matthew Raley)가 “이성적, 영적 예배: J. S. 바흐와 에드워즈 비교”(A Rational and Spiritual Worship: Comparing J. S. Bach and Jonathan Edwards)⁴⁾를 발표하기는 했으나, 에드워즈의 ‘마음의 변화’와 ‘조화로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 개념을 간략히 소개할 뿐 에드워즈의 예배 사상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도 성례에 관한 에드워즈의 사상을 연구한 몇 개의 논문들이 있지만, 대부분 교인의 자격이나 성찬논쟁과 연결된 연구들일 뿐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에드워즈의 예배론에 관한 연구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소고는 에드워즈의 예배론 전체를 개괄적으로 다루지 않고, 예배의 본질과 의의,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에 관한 에드워즈의 사상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일대학교 출판 에드워즈 전집을 주요 원자료로 사용하면서, 그 외에 예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에드워즈 홈페이지와 헨드릭슨 출판 전집(2 vols)도 참고하여 그의 사상을 분석하고 종합할 것이다.⁵⁾ 본 소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예배의 본질과 의의에 대한 에드워즈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논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배의 방식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로 이어간 후, 예배와

2) 안덕원,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배관과 21세기 한국교회예배”, 『한국개혁신학』 17 (2005): 185-211.

3) Ted Rivera, *Jonathan Edwards on Worship: Public and Private Devotion to God* (Eugene, OR: Pickwick, 2010).

4) Matthew Raley, “A Rational and Spiritual Worship: Comparing J. S. Bach and Jonathan Edward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2/3 (2019): 583-597.

5) 각주에서 전집의 각 권 출판 정보를 모두 표기할 경우 지면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할 수 있으므로, 예일판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는 *WJE*와 권번호로 표기하고, 헨드릭슨 판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는 *WJE*²와 권번호로 표기한다.

안식일과의 관계를 살피고,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평가와 함께 결론을 내릴 것이다.

2. 예배의 본질

2-1. 예배의 정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에드워즈의 글들에서 “예배는...”(Worship is)이라는 어구로 시작하는 명시적인 정의는 유일하게 『사랑과 그 열매』에서 나오는 “신앙 또는 예배의 개념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공경의 활동이며 표현이다.”가 전부다.⁶⁾ 그러나 이것은 에드워즈가 특정한 주제의 설교 문맥에서 정의한 것이므로 예배에 관한 그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에는 에드워즈의 예배 신학의 출발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에드워즈에게 예배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창조에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지성적인 피조물은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에드워즈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그것들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선포한다”⁷⁾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비단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만은 아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창조에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그것이 곧 예배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의 사역 속에서 자신을 전달하신다는 의미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시는 존재(communicating being)로 그의 탁월하심과 선하심과 영광과 행복을 밖으로(ad extra) 나타내시고 전달하신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다.⁸⁾ “영광”은 빛을 발한다는 의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완전하심을 발하심, 또는 그의 완전하심을 전달하심이다.⁹⁾ 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달하시는 대상은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피조물의 지성(understanding)에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영광을 발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피조물의 마음(affection)에 자신을 전달하심으로써 영광을 발하신다.¹⁰⁾ 또한, 지성적인 존재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기능인 의지(wills)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실 때, 그것이 곧 그들의 행복이 된다.¹¹⁾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¹²⁾

특히 성경의 증거들(요 12:28; 사 42:8; 48:11)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다른 어떤 선에 종속되는 선이 아니라 독립적인 선이며, 사실상 최고의 선이므로,¹³⁾ 피조물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다만 지성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에서 비롯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한 목표일 수 없다.¹⁴⁾ 만일 우리가 하

6) Jonathan Edwards, “Charity and Its Fruits,” in *WJE* 8:137.

7) Jonathan Edwards, “The Duty of Harkening to God’s Voice,” in *WJE* 10:440.

8)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04,” in *WJE* 13.

9)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47,” in *WJE* 13. 한편, 에드워즈가 때에 따라 바꾸어 쓰는 탁월하심, 완전하심, 선하심 등의 단어들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에드워즈에게 탁월하심은 주로 하나님의 본성적인 속성들의 도덕적인 완전하심을 가리키는 단어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중의 하나로 탁월하심이 포괄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완전하심은 본성적인 완전하심에도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전달하심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완전하심은 주로 도덕적인 탁월하심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onathan Edwards, in *WJE* 2:254-56을 참고하라.

10)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448,” in *WJE* 13.

11)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s. 3, 87, 92, 104, 332,” in *WJE* 13.

12)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08,” in *WJE* 13.

13)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43,” in *WJE* 13.

나눔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영화롭게 해 드리기를 추구한다. 또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공경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¹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근본 원리에 근거할 때, 에드워즈는 이 세상의 모든 공적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세상 통치의 최종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덕적인 세상의 일부가 선하게 만들어진, 또는 그 존재가 선한 주된 목적이다. 또한, 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 가운데 공적 예배와 하나님의 규례들을 설립하신 목적이라고 본다.¹⁵⁾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인들의 예배가 부패하여 헛된 신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참 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므로, 예배는 첫 창조를 넘어 새로운 근거로 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피조물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정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피조물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만을 원하신다면 천사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셔도 되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시면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면 되므로,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예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죄로 물든 피조물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을 통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인간보다 더 완벽한 피조물을 다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을 가리켜 예배라고 할 수도 없다.¹⁷⁾

하나님께서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받으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타락한 피조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회복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다. 실제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새로운 창조다. 지성적인 존재인 죄인들의 영혼의 두 기능인 지성과 감정을 다시 창조하여 기존의 것들과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성과 마음에 새로운 본성의 원리(new principles of nature)를 넣어주시는 것이므로 새 창조다.¹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창조와 함께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신다. 구원하시는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내주하게 하시는 은혜가 곧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시는 사역이다.¹⁹⁾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구원하시는 사역, 곧 새로운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므로, 사람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회복되었다. 그리하여 에드워즈는 “영광스러운 은혜”(Glorious Grace)라는 설교에서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돌리는 존엄의 예배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14)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70,” in *WJE* 13.

15)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70.”

16) Jonathan Edwards,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in *WJE* 8:489.

17) Edwards, “Glorious Grace,” 393.

18)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06.

19) 에드워즈는 이것을 『신앙감정론』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며, 그 은혜로 하나님은 그의 본성에 있는 선하심을 전달하신다. ... 이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은 하나님께 특유한 것이며, 그 영향들을 통해 아주 고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달하시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다(하나님의 영은 그의 고유한 본성 안에서 자신을 전달한다.”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03.

내주신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라고 하여 예배의 근거를 창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찾는다.²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와 구원자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다.

2-2. 예배의 의의

이 두 가지 정의에서 우리는 에드워즈가 제시하는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참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것이라면, 예배는 결코 생명을 얻는 수단일 수 없다. 물론 에드워즈는 청교도들의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회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 중 하나로 보았다.²¹⁾ 그러나 에드워즈는 예배를 결코 생명 얻는 수단으로는 보지 않았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매우 깨끗하게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잘 예배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천천의 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희생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렇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죄를 위해 몸의 열매를 희생 제물로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의 의무를 충분히 한다고 해서, 그것들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그저 의무를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당신의 필수적인 의무가 아닌 것을 행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죄일 뿐이다.²²⁾

그러므로 에드워즈는 당대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가고, 공적인 예배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외적인 형식들을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리켜 손쉬운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행태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²³⁾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 에드워즈는 『신학묵상집』의 한 항목에서 예배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한다.

사람의 최고 목적과 행복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최고의 의무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목상하며, 또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사랑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²⁴⁾

이 주장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하심을 보는 것이 참된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징이라고 주장한다.²⁵⁾ 하나님에게는 도덕적 탁월하심을 뜻하는 거룩하심과 본성적 완전하심을 뜻하는 위대하심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성적 완전하심에 속하는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 편재하심, 두려운 위엄 등은 거둬나지 않은 죄인들도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덕적 탁

20) Jonathan Edwards, “Glorious Grace,” in *WJE* 10:393.

21) Mark Valeri, “Preface to the Period,” in *WJE* 17:10, 12. 다만 그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예배 참석의 절대적인 기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은혜의 수단 사용을 모두 균형 있게 강조한 것이다.

22) Jonathan Edwards, “Life through Christ Alone,” in *WJE* 10:523, 530.

23) Jonathan Edwards, “The Importance of a Future State,” in *WJE* 10:375.

24)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27,” in *WJE* 10:291.

25)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53-266.

월하심은 오직 참된 성도들만 보고, 사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²⁶⁾ 어떤 지성적인 존재의 거룩한 본성은 또 다른 지성적인 존재의 거룩한 본성과만 합치될 수 있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의 원리, 곧 거룩한 본성을 얻게 된 성도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거룩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반면, 거듭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한다.²⁸⁾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완전하심에 대한 바른 개념과 인식이 있을 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성도는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기가 예배하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 목적도 없이 드리는 헛된 예배다.²⁹⁾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언약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므로, 교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다. 에드워즈는 구속 역사에서 예배의 모형과 원형을 대조시켜 설명한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참된 예배와 신앙을 보존하셨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 되었고, 그들이 드리던 제사는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예배의 그림자였다.³⁰⁾ 이 모형과 그림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원형으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참된 언약공동체와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모으신 것이다. 그리하여 에드워즈는 교회를 가리켜 “기독교의 거룩한 공적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모인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정의한다.³¹⁾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정체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에게는 예배의 의무가 있으며, 언약을 통해 그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 개인도 교회의 본질을 따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³²⁾

그뿐 아니라, 교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일을 해야 한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자기들의 연합을 고백하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하는 공적 예배의 한 부분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비단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하던 제도가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한 것이다.³³⁾ 특히 신약교회에서 성례는 대표적으로 언약과 직접 연결된 외적인 규례들이다. 성례는 비록 외형적으로 시행되는 의무들이지만, 그 본질과 의도는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 또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연합과 관련된 생생한 원리들을 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성례가 행해질 때, 이에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³⁴⁾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성도의 의무임과 동시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 하나가 된다. 성도는 예배 중에 그리스도와의 즐거운 연합을 즐긴다.³⁵⁾ 그래서 에드워즈

26)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65.

27)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60.

28) Jonathan Edwards, “All That Natural Men Do Is Wrong,” in *WJE* 19:528.

29) Jonathan Edwards, “God’s Excellencies,” in *WJE* 10:416. 또한, 417, 421, 425, 428쪽도 보라.

30)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59,” in *WJE* 13.

31)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39,” in *WJE* 13; Jonathan Edwards, “The Means and Ends of Excommunication,” in *WJE* 22:76.

32) Jonathan Edwards, “To the Reverend Elnathan Whitman, February 9, 1743/4,” in *WJE* 16:133.

33) Jonathan Edwards, “An Humble Inquiry,” in *WJE* 12:201-202.

34) Edwards, “An Humble Inquiry,” 301.

35) Edwards, “An Humble Inquiry,” 255. 케네스 민케마도 리베라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배론』 서문에서 “에드워즈에게 예배와 찬양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는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 출교를 당할 때, 교회의 교제와 예배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그가 잃게 되는 가장 큰 특권 중의 하나라고 경고한다.³⁶⁾

넷째로, 언약공동체 교회의 예배 의무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이어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는 더이상 구약의 희생 제사나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을 의지하여 예배한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첫 제사였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식을 보여주는데,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희생이 있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를 시작으로 구약의 예배들은 주의 백성들을 참된 믿음과 증보자에게로 인도해주는 모형과 그림자가 된다. 그리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온전한 희생을 하심으로써 주 안에서 죄 용서를 얻은 성도는 자기의 공로나 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증보의 대속과 만족케 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다.³⁷⁾

뿐만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 에드워즈는 창조의 목적에 관하여 논할 때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다. 즉 아들의 사랑을 받을 배우자 또는 신부를 준비하시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부와 신랑간의 상호 기쁨이 창조의 목적이다.”³⁸⁾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며, 예배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므로, 교회는 모든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인다.³⁹⁾

마지막으로, 교회가 지키는 외적인 예배의 규례들은 천상에 속한 것들의 모형이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외적인 사역이 영적인 사역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드리는 외적인 예배도 천상에 속한 것들의 모형이라고 주장한다.⁴⁰⁾ 또한, 천국의 성도들에 대한 최고의 유비를 이 땅에서 예배에 참석한 회중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안식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장 잘 닮았기 때문이다.⁴¹⁾ 같은 맥락에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마련해 놓으신 집의 모형이다. 에드워즈는 예배당을 새로 지은 후에 요한복음 14:2을 본문으로 행한 또 다른 설교 “거할 집이 많도다”(The Many Mansions)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집은 어떤 면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배당들에서 영광 진리로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당들은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외부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 땅에 공적 예배를 위한 예배

연합을 즐기는 방식이다”라고 주장한다. Rivera, *Jonathan Edwards on Worship*, ix.

36) Edwards, “The Means and Ends of Excommunication,” 75.

37) Jonathan Edwards, “Christ’s Sacrifice,” in *WJE* 10:594.

38)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71,” in *WJE* 13.

39) Jonathan Edwards, “Of God The Father,” in *WJE* 25:117. 한편, 에드워즈는 1737년 예배 도중 예배당이 붕괴된 후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12월 25일 아침에 학개 2:7-9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 설교의 원고는 아직 복원되지 않았으나, “공적인 예배를 위한 집의 가장 큰 영광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중심의 공적인 예배와 예배당에 관한 그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준다. Jonathan Edwards, “Appendix B: Dated Sermons, January 1734–December 1738,” in *WJE* 19:808.

40) Jonathan Edwards, in *WJE* 11: *Typological Writings*, 192.

41) Jonathan Edwards, “They Sing A New Song,” in *WJE* 22:241.

당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영광스러운 모임 또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⁴²⁾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된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기쁨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다.

3. 예배의 방식과 안식일

3-1. 예배의 방식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서를 따라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형식과 요소들에 대한 에드워즈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구속사적으로 추적한다.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예배의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희생제사가 이어졌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생겨났다. 전국 각지에 회당이 세워지고, 각 처소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등사본을 보관하여 안식일마다 읽고 가르치는 일을 행했다. 또한, 회당에서 자주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⁴³⁾ 이것은 신약교회에서 교사들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목사들은 매주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⁴⁴⁾

신약교회에서 달라지는 예배의 방식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 장막의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는 것 등은 모두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시대에는 물리적인 성전이나 장막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다(슥 6:13).⁴⁵⁾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규례들은 모두 중단되고, “영적인 예배, 곧 마음의 예배”에 자리를 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를 위해 정하신 “영적인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요 4:23-24).⁴⁶⁾ 또한, 에드워즈는 예배에 어떤 화려한 장식이나 소란스러움 없이 가장 소박하고 단순하게 드려야 한다고 보았다.⁴⁷⁾

그러므로 에드워즈가 가장 반대했던 것은 잉글랜드 국교회와 로마 가톨릭의 예배 방식이었다. 그들의 예전은 예배 방식에 관한 참된 권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산물이므로 결코 올바른 예배 방식일 수 없었다.⁴⁸⁾ 에드워즈가 회상하는 뉴잉글랜드 청교도 1세대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이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국교회의 형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즈음에 뉴잉글랜드 교회들의 예배가 형식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쇠퇴한 것을 에드워즈는 크게 한탄했다. 그는 1738년경 예레미야 2:5을 본문으로 행한 “고발

42) Jonathan Edwards, “The Many Mansions,” in *WJE* 19:738.

43) Edwards, *Typological Writings*, 297.

44) Jonathan Edwards,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of the Messiah,’ Miscellanies no. 1068. 3,” in *WJE* Online 30, <http://edwards.yale.edu/archive?path=aHR0cDovL2Vkd2FyZHMueWFsZS5lZHUvY2dpLWJpbi9uZXdwaglsby9nZXRvYmplY3QucGw/Yy4yOTo2LndqZW8=>; Edwards, *Typological Writings*, 297.

45) Edwards, *Typological Writings*, 300.

46) Jonathan Edwards, in *WJE* 9: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 347.

47) Jonathan Edwards, “No. 474. Exodus 20:24-26,” in *WJE* 15:571.

Jonathan Edwards, “475. Exodus 25:23-40,” in *WJE* 15:571

48)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s. 12, 13,” in *WJE* 13.

하시느 하나님”(Indicting God)이라는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으로 노샘프턴 교회의 영적인 나태를 꾸짖으면서, 청교도 1세대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뉴잉글랜드 조상들은 “순수한 예배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 인간적인 제도와 의식들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웠”⁴⁹⁾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의식들에 점점 빠져들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싫증을 내고 있다.”⁵⁰⁾는 것이었다. 에드워즈의 관점에서 제도와 의식에 빠지는 예배는 “예배하는 척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가톨릭적인 예배 방식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한 예로, 코네티컷 주 고셴(Goshen) 지역의 한 회중교회가 담임목사 스테픈 히이튼(Stephen Heaton)과의 불화로 목사를 면직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⁵¹⁾를 데려오려고 하자, 에드워즈는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 교회 집사 모세 라이먼에게 편지하면서 예배의 방식을 꼬집었다. 잉글랜드 국교회가 예배를 위해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들은 성경과 선한 양심에 비추어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첨가한 것이므로 모두 불법이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들이므로, 결코 그러한 예배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 목사를 청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⁵²⁾

그러나 에드워즈는 예배와 관련해서 모든 종류의 외적인 요소를 가미하려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환경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설교자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단의 위치나 설교자의 목소리 톤 등은 지역교회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또한, 예배 시간에 어떤 제스처나 몸의 동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에드워즈는 긍정적이었다. 예배에서 제스처나 동작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예배의 참된 가치와 정신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무언가를 억제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억제하게 되어 신앙 감정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굳이 삼갈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제스처나 몸의 동작들이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 크게 형성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⁴⁾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에드워즈는 예배의 예전을 전통적인 개혁신앙에 따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즈가 시무하던 교회의 공적 예배 순서가 어떠했는지 남아 있는 기록은 없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처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을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⁵⁵⁾

이 순서 중에서 에드워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설교였다.⁵⁶⁾ 그가 1749년 뉴햄프셔 포

49) Jonathan Edwards, “Indicting God,” in *WJE* 19:760.

50) Edwards, “Indicting God,” 762.

51) 에드워즈가 사용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사상 전체를 일컫는 광범위한 단어다.

52) Jonathan Edwards, “To Deacon Moses Lyman, September 30, 1748,” in *WJE* 16:252. 또한,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예배와 복음의 가르침과 영원한 구원에 관한 일들이 화려한 예배당 장식에 휘둘러서도 안 된다고 했다.

53)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76,” in *WJE* 13.

54)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01,” in *WJE* 13

55) 청교도 예배의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예배로의 초청 - 찬양의 기도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 - 시편 낭독 - 구약 낭독 - 또 다른 시편 낭독 - 신약 낭독 - 온 회중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 설교 - 목회기도 (병자나 고통 겪는 교인을 위한 도고 포함) - 또 다른 시편 낭독 - 축도.” Valeri, “Preface to the Period,” 15-16.

56) 본 논문에서는 에드워즈의 설교 방식이나 특징 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고, 다만 예배의 형식과 관련하여 그 역할 정도만 논의한다. 그의 설교 전반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므로,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류웅렬, “열정에 사로잡힌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연구”, 「한국 개혁신학」 17 (2005): 155-84; 이승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연구 :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설교”, 「복음과 실천」 10 (2005): 19-46; 박완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그의 ‘마음의 감각’ 「신학정론」 24/1 (2006): 211-45; 이영란, “조나단 에드워즈의 윤리설교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교회 윤리설교의 방향”, 「설교한국」 2/1 (2010): 80-105; 박현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분석을 통한 적용 패

즈머츠의 좁 스트롱(Job Strong) 목사 안수식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말씀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씻고 닦아주는 것이었다.⁵⁷⁾ 그러므로 에드워즈의 예배 시간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주일 오전 예배의 경우 예배 시간이 총 2~2.5시간 정도였는데, 설교가 1~1.5 시간 정도를 차지했다. 그에게 설교자의 사명은 성경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회중의 지성을 채우고, 그들을 말씀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었다.⁵⁸⁾ 설교자가 어떻게 회중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그가 스트롱의 안수식에서 행한 설교의 한 대목이 잘 보여준다.

목사들은 설교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처럼 가르치지 않으시고,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가르치셨다. 또한, 주로 신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르치시되,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받을 저주의 위험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미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많이 말씀하셨다. 또한, 신앙의 외적 의무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무도 가르치시되, 영적인 교만과 자기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위험한지 많이 말씀하셨다. 반면에 성도 안에 내재하는 거룩함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경건의 실천도 많이 강조하셨다.

결국, 설교자는 회중의 도덕적 또는 영적 상태와 관심들을 들추어내어 그에 맞는 권면을 하거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⁵⁹⁾ 한편, 에드워즈는 평신도의 설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설교 사역과 직무를 섬길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평신도의 설교가 일시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교회의 무질서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노샘프턴 교회 교인이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모세 라이먼 집사가 자기 교회에서 공적인 권면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편지를 보내 그것을 즉시 중단시키기도 했다.⁶⁰⁾

에드워즈는 설교 외에 기도와 찬송도 예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우선 기도와 공적 예배의 관계에 대해, 모든 예배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기도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심지어 제유법적으로 예배 전체를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⁶¹⁾ 기도가 신약교회에서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 방식과 풍성함이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신약교회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행위라는 점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가시적인 신약교회만의 특징이다.⁶²⁾ 다만, 에드워즈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예배에 동참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신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 역으로, 그는 사적인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공적인 기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러다임 연구”, 「개혁논총」 25 (2013): 283-321; 박응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영적 대각성운동 : 노샘프턴교회 목회사역을 중심으로”, 「신학과선교」 13 (2013): 119-63; 신성욱, “Jonathan Edwards의 설교에 나타난 로고스와 파토스 연구 :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35 (2015): 138-189; 손동식, “명설교자의 사중복음 설교 : 조나단 에드워즈의 중생설교”, 「활천」 779/10 (2018): 76-80.

57) Jonathan Edwards, “Christ the Great Example of Gospel Minister,” in *WJE* 25:335.

58) Wilson H. Kimnach,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rmons: Jonathan Edwards’ Art of Prophesying,” in *WJE* 10:203.

59) 발레리가 분석한 에드워즈 본인의 설교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Valeri, “Preface to the Period,” 15.

60)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3), 276; Jonathan Edwards, “To Deacon Moses Lyman, May 10, 1742,” in *WJE* 16:102-03.

61) Jonathan Edwards, “An Humble Attempt,” in *WJE* 5:314.

62) Edwards,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 142.

서 “자기 체면을 위해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³⁾ 따라서 그는 공적 기도의 형식을 구비하거나 기도 참여를 촉구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를 통해 기도의 영을 명확하게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찬송에 관해서는 에드워즈가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것이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온 우주적이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보았다.⁶⁴⁾ 그러므로 신약교회에서 찬송은 다윗의 찬송과 비교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는 새 찬송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부를 영원한 노래를 지상에서 이미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에드워즈는 찬송이 실제적인 면에서도 “마음의 조화로운 작용(harmonious exercises of the mind)을 표현하고 증진”하기 때문에 예배를 아름답게 하고 예배자들에게 크게 유용하다고 보았다.⁶⁵⁾

문제는 찬송의 형식이었다. 본래 뉴잉글랜드 회중교회 청교도 1세대는 반국교회 원리를 따라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형식을 거부했으므로, 찬송의 경우에도 시편을 문자 그대로 옮겨 놓은 노래만을 불렀다.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영국의 비국교도들은 아이작 왓츠를 중심으로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성가를 개혁하고 있었다. 성경적인 주제들에 기초하기만 하면 된다는 근거 아래, 1707년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Hymns and Spiritual Songs)을 출판했다. 그 이후 찬송가가 뉴잉글랜드에 소개되면서, “합창” 또는 파트를 나누어 부르는 찬송도 보급되었다.⁶⁶⁾

에드워즈는 아이작 왓츠의 찬송가와 합창 등을 적극 수용했다. 그는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를 즐겼는데, 그들 중에서 외손녀 샬리는 왓츠의 찬송시를 곧잘 암송했다.⁶⁷⁾ 또한, 에드워즈의 기록에 의하면, 1734년 그의 회중이 시편 찬송을 배워서 예배 중에 4부로 찬송을 불렀다.⁶⁸⁾ 그리고 1742년 여름에는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왓츠의 찬송가를 주일 오후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세 번이나 불렀다.⁶⁹⁾ 또한, 스톡브리지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목회하던 1753년에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수 있게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줄 선생님을 모셔오기 위해 익명의 음악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⁷⁰⁾ 이러한 사례와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에드워즈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뉴잉글랜드 교회들에 악기가 도입된 것은 1790년대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예배 순서와 관련해서 에드워즈는 그러한 순서가 잉글랜드 국교회와 로마 가톨릭의 인간적인 예전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예배 순서들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들을 받아들여 예배에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리는 예배의 구체적인 순서들을 어떻게 할지, 즉 어떤 순서를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지, 기도와 찬양을 먼저 할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등을 어떤 제도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다. 예배에서 연합하는 회중에 의해 일정한 순서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중은 어떤 방식이나 방식으로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 회중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듣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친다는 데에 동의한

63) Jonathan Edwards, “Hypocrites Deficient in the Duty of Prayer,” in *WJE* 2:72.

64) Edwards, *Typological Writings*, 263.

65)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53,” in *WJE* 13.

66)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143-44.

67)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493.

68) Jonathan Edwards, “A Faithful Narrative,” in *WJE* 4:118, 151.

69) Jonathan Edwards, “To the Benjamin Colman, May 22, 1744,” in *WJE* 16:144.

70) Jonathan Edwards, “To a Singing Teacher, June 4, 1753,” in *WJE* 16:596.

다면, 또한, 해마다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한다면, 이 순서가 성경에서 정한 바는 아니지만, 아무도 이것을 가리켜 미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⁷¹⁾

에드워즈는 구체적인 성경적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용인하는 범주 안에서 회중의 합의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해야 예배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시적인 형태의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합의와 연합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반드시 필요했다.⁷²⁾

3-2. 예배와 안식일

예배의 방식에서 그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는 공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모든 날을 드려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사적인 예배와는 다른 방식으로 온전히 하루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이 있으며, 그날이 일주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한다.⁷³⁾ 무엇보다 자연적인 이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복음의 시대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의 직접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그 시간의 간격이 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⁷⁴⁾ 창조 기사와 제4계명을 보더라도 이 시간적인 간격을 일주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에드워즈는 주장한다.

이 때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킬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념하는 데서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불리는 첫째 날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므로, 그들이 지킨 안식일도 복음 시대의 구원의 날 곧 주일의 모형이 된다.⁷⁵⁾ 일주일 중 첫째 날에 해당하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고 안식을 회복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옛 창조의 안식일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중요하다.⁷⁶⁾ 특히 에드워즈는 예배와 관련해서 이날의 중요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유대인의 안식일은 본래 기쁨의 날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신 날이므로 슬픔과 통곡의 날이 되었고, 그 다음 날인 첫째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 아침에 신부인 교회를 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죽음과 극심한 고통과 어둠의 땅과 지옥의 골짜기로부터 신부에게 돌아”오셨으므로 신부인 교회가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킨다.⁷⁷⁾ 둘째, 그리스도께서 이 첫째 날에 부활하신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여 부활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곧 교회가 죽음과 지옥에서 부활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⁷⁸⁾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⁷⁹⁾ 셋째, 그리스도께서 이날을 제정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교회에게 보여주셨다. 이날을 주일(Lord's day)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날을 제정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교회에게 보여주셨고, 그리

71) Edwards, “An Humble Attempt,” 369-70.

72) Edwards, “An Humble Attempt,” 372-73.

73)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751,” in *WJE* 18.

74)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60,” in *WJE* 13.

75)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8,” in *WJE* 13;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691,” in *WJE* 18.

76)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60.”

77) Edwards, “The ‘Miscellanies,’ no. 691.”

78) Edwards, “The ‘Miscellanies,’ no. 691”;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71.”

79) Edwards,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 363.

스도인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이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다.⁸⁰⁾ 그러므로 교회는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하며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넷째,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 달콤한 양식과 향으로 드리시고, 교회에게는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 자신을 양식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마치 옛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 같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⁸¹⁾ 다섯째, 에드워즈는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고 보았다. 즉, 사람의 본성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기로 미리 생각해 두고, 그날을 기쁘게 보내기로 미리 정해둔다면, 막상 그날이 찾아올 때 예배의 헌신과 기쁨이 훨씬 더 깊고 클 것이라는 것이다.⁸²⁾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 성도들이 주일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은혜도 베푸신다고도 했다. 1737년에 예배당 붕괴 사고가 있는 직후에 에드워즈는 보스턴의 벤자민 콜먼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 사건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루를 때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집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중에 것처럼 위험하고 놀라운 사고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그토록 놀랍고 기적적인 보호하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다.⁸³⁾

예배 도중에 2층 다락이 무너지는 끔찍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에드워즈에게 안식일의 공적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에드워즈는 이런 모든 이유들을 고려할 때 성도들이 일주일 중의 주일 하루 전체를 때 내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면이나 영원한 상태에 크게 유익하다고 단언한다.⁸⁴⁾

따라서 그는 주일성수를 매우 강조했으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예배를 더럽히는 것을 매우 큰 죄로 여겼다. 몇 가지 사례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1728년 가을, 에드워즈는 “지옥의 고통은 지극히 크다”(The Torment of Hell Are Exceeding Great)라는 설교에서 청년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일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 중에서 흔한 일이 아닌가?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이, 특히 청년들이, 거룩한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대화와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자기 발밑에 짓밟아 버리며, 거룩한 시간과 다른 시간을 전혀 구별하지 않지 않는가? ... 안식일에 불경하고 외설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다.⁸⁵⁾

또한, 그가 1752년에 윌리엄 맥컬로흐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상거래를 위해 주일 예배에 불참하면서까지 장거리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술에 취하던 인디언 남성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다.⁸⁶⁾ 그뿐 아니라, 에드워즈는 1730년 혹은 1731년에 행한 것으로 보이는 “안식일

80) Jonathan Edwards, “The Perpetuity and Change of the Sabbath,” in *WJE* 17:243.

81) Jonathan Edwards, “No. 475. Exodus 25:23-40,” in *WJE* 15:573.

82)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43,” in *WJE* 13.

83) Jonathan Edwards, “To the Benjamin Colman, May 19, 1737,” in *WJE* 16:66.

84) Jonathan Edwards, “All God’s Methods Are Most Reasonable,” in *WJE* 14:184.

85) Jonathan Edwards, “The Torments of Hell Are Exceeding Great,” in *WJE* 14:328.

86) Jonathan Edwards, “To the Reverend William McCulloch, November 24, N.S., 1752,” in *WJE*

의 영속성과 변화”(The Perpetuity and Change of the Sabbath)라는 설교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의 전제로 주일 준수 또는 안식일 준수를 강조했다. 그 당시 상업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일에도 영업을 하자 이와 관련해서 찬반의 여론이 나뉘어 있었다. 그러자 에드워즈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규정하고 성도들에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의 첫째 날을 신앙적인 실천과 의무를 위한 날로 특별히 떼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다.”라는 교리를 중심으로, 교회가 반드시 특정 시간을 정하여 신앙적인 일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에 온전히 사용하고, 특히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설교했다.⁸⁷⁾

한편, 에드워즈는 이렇게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안식일, 곧 주일성수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잉글랜드 국교회의 예전들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정한 예배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해 성경은 어떤 제도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합의가 없으면 공동체적인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에서, 일정한 무리가 공적 예배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⁸⁸⁾

4. 예배자의 자세

예배에 관한 에드워즈의 사상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그가 예배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공적 예배의 의무와 바른 예배 태도를 강조한 점이다. 예배는 신약교회에게 주어진 엄중한 의무임과 동시에 거룩한 기쁨이므로, 에드워즈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공적 예배 참석을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여기고 성도들을 독려했다. 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영적인 대각성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에드워즈는 공적 예배 참석과 예배의 태도가 교회와 성도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보았다.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나은 상태에 있을 때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잘 지켜지지만,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 참석이 게을러지고, 마음가짐도 냉랭해진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쇠퇴와 함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던 1734년에 행한 “생기 없는 시대의 금식일”(Fast Day in Dead Times)이라는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체”한다고 안타까워 한 반면,⁸⁹⁾ 영적 대각성 기간 중인 1743년 보스톤의 토머스 프린스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현재 공적 예배 참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훨씬 더 진지함과 품위가 있다”⁹⁰⁾고 평가했다. 또한, 1735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는 보스톤의 벤자민 콜먼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설교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일과 규례들과 공적 예배의 기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안식일이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린다. 어떤 사람들은 주중에 이따금씩 울리는 교회 종소리에도 크게 감동을 받는다. 왜냐하면 종소리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 그들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사역자들을

16:543.

87) Edwards, “The Perpetuity and Change of the Sabbath,” 222, 224, 225.

88) Edwards, “An Humble Attempt,” 369-70.

89) Jonathan Edwards, “Fast Days in Dead Times,” in *WJE* 19:70.

90) Jonathan Edwards, “To the Reverend Thomas Prince, December 12, 1743,” in *WJE* 16:115.

존중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⁹¹⁾

에드워즈가 성도들에게 예배의 의무를 강조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먼저, 에드워즈는 자기의 청년 시절부터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것을 다짐하며 시간을 가리켜 ‘소중한 시간’(precious time)이라고 적곤 했는데,⁹²⁾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었다. 1734년, 그는 노샘프턴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청년들에게 예배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호소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선용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 비록 모든 시간이 매우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시간이 있다. 특히 거룩한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한 시간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안식일을 선용하라. 특히 거룩한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인 공적인 예배 시간을 선용하라. 예배 시간에 졸거나, 부주의하거나, 멍하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허송하지 말라.⁹³⁾

또한, 1753년에 스톡브리지 원주민 여자 학교의 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스턴 위원회 서기 앤드류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그들이 추천한 아비가일 드와이트라는 여성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그녀의 남편 드와이트 대령이 꽤 오랫동안 공적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아비가일도 자주 예배를 거르기 때문에 학교 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⁹⁴⁾

이처럼 에드워즈는 공적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성도의 기본 의무로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석 자체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택하신 세대”(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⁹⁵⁾고 역설했다. 그는 여러 글에서 “예배하는 척한다”(pretend to worship)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 또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또는 일상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에드워즈가 강조한 예배자의 태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에드워즈는 외형적으로만 어떤 의무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했다.⁹⁶⁾ 그가 생각하는 마음의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다. 예배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피조물이 창조주께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경외감과 사랑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다. 에드워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가득하셨다. 그리하여 경외하는 자세로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가장 경외감 있는 예배를 드리셨다.”⁹⁷⁾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온전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 에드워즈는 1741년 다른 도시에서 목사의 도움 없이 회심을 한 18세 청년 드보라 헤디웨이에게 편지를 보내 격려하면서 그녀가 어떻게 예배를 비롯한 외적인 의무들에 임해야 하는지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

91) Jonathan Edwards, “To the Reverend Benjamin Colman, May 30, 1735,” in *WJE* 16:54.

92) 1722년 1월 6일 일기에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적고 있다. “소중한 시간(precious time)을 선용하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몸이 죄할 만큼 쉽 없이 계속해서 죄를 죽이고, 세속적인 안일함이나 기쁨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기로 다짐한다.” Jonathan Edwards, “Diary,” in *WJE* 16:761.

93) Jonathan Edwards, “The Preciousness of Time,” in *WJE* 19:259.

94) Jonathan Edwards, “To Sec. Andrew Oliver, April 12, 1753,” in *WJE* 16:591.

95) Jonathan Edwards, “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 in *WJE* 17:317.

96) 그는 “말씀을 유익하게 듣는 자들”(Profitable Hearers of the Word)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라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진다. Jonathan Edwards, “Profitable Hearers of the Word,” in *WJE* 14:263.

97) Jonathan Edwards, “The Excellency of Christ,” in *WJE* 19:569.

도께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상한 마음을 깨뜨려 신적인 사랑이라는 향유를 하나님께 부으라고 권면했다.⁹⁸⁾ 내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외적인 예배는 공허하고 헛된 예배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가 드리는 참으로 내적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따르려는 열망,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기도 하다.⁹⁹⁾

둘째, 에드워즈는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예배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는 “신성모독”이 거룩한 것들에 대한 경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 가장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식일에 대해서나 예배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신성모독이며, 예배 중에 웃고 장난을 치는 것도 신성모독이라는 것이다. 특히 에드워즈의 회중에서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보이던 잘못된 행동들을 꾸짖었던 사례가 잦았다. 1729년 금식일에 행한 “죄와 사악함은 백성들에게 재앙과 불행을 가져온다.”(Sin and Wickedness Bring Calamity and Misery on a People)라는 설교에서 그는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웃고 떠들면서 예배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했다.¹⁰⁰⁾ 또한, 1735년 5월경에 행한 설교로 보이는 “죄인들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The Justice of God in the Damnation of Sinners)라는 설교에서도 예배 시간에 자기의 정욕을 즐기고 안식일을 제멋대로 보내는 것을 꾸짖었다.

여러분은 거룩한 시간에 온갖 잡생각으로 여러분의 정욕을 채우면서 보내지 않았는가? 단지 거룩한 시간뿐 아니라, 훨씬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말이다.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분의 정욕을 즐기고, 구역질 나는 불결함 속에 여러분 자신을 뒹굴게 한다!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그렇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보냈는가!¹⁰¹⁾

또 1737년 3월에 행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구하기”(Continuing God’s Presence)라는 설교 원고에는 처음에 적었다가 나중에 지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배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행위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공공연하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리하여 에드워즈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여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함으로써 영적으로도 잠들지 않게 하라고 권면한다.¹⁰²⁾ 그리고 같은 해, 예배당이 붕괴된 후 에드워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에 관한 설교를 하는 중에 예배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스스로 물어보라고 권면했다.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생각해 보라. 설교를 어떻게 들었으며, 눈동자는 얼마나 산만했으며, 생각은 얼마나 딴 곳을 헤맸는가? 예배당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땠는가?”¹⁰³⁾

이 설교들의 공통점은 모두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면전” 또는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98) Jonathan Edwards, “To Deborah Hatheway, June 3, 1741,” in *WJE* 16:93.

99) Edwards, “Profitable Hearers of the Word,” 258을 참고하라.

100) Jonathan Edwards, “Sin and Wickedness Bring Calamity and Misery on a People,” in *WJE* 14:501.

101) Jonathan Edwards, “The Justice of God in the Damnation of Sinners,” in *WJE* 19:349.

102) Jonathan Edwards, “Continuing God’s Presence,” in *WJE* 19:424-415.

103) Jonathan Edwards, “Undeserved Mercy,” in *WJE* 19:651.

첫 번째 원칙을 생각할 때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외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업신여기고 더럽혔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그것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가장 추악한 신성모독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에 에드워즈는 평생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던 한 명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는 에드워즈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외삼촌 존 스토다드였다. 1748년 6월, 스토다드가 사망하자, 에드워즈는 “강한 가지가 꺾이고 말랐더라”(A Strong Rod Broken And Withered)라는 설교에서 스토다드가 얼마나 참된 예배자였는지 칭찬했다. 스토다드는 거룩한 일들을 항상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는 진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배 시간에 불경하고 불품없게 줄지 않았고, 머리를 숙이고 잠에 빠지지 않았으며,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을 둘러보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진지하고 성신했다.¹⁰⁴⁾ 스토다드를 가리켜 “예배에 품위 있게 참석하는 본보기”라고 평가하는 이 칭찬 속에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예배자의 태도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로, 공적인 예배 참석은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과 병행해야 한다. 에드워즈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다. 에드워즈는 “거룩의 길”(The Way of Holiness)이라는 설교에서, 공적 예배에 아무리 참석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 때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포함하지만, 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강조되었다.¹⁰⁵⁾ 또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Duty of Charity to the Poor)에서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외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라고 가르쳤다.¹⁰⁶⁾ 다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의 전제조건으로 주어지는 의무에 불과한 게 아니었다. 에드워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서로 상보적이라고 보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높이게 해주며, 또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높이면, 그것이 우리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해준다는 것이었다.¹⁰⁷⁾ 반면에, 에드워즈는 성도들 사이의 다툼과 불화가 예배에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1730년대에 노샘프턴 교회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다툼이 만연했는데, 이때 에드워즈는 그 불화가 영적인 일에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세 편의 설교를 했다. “영적인 쇠퇴의 위험”(The Danger of Decline), “공적인 일들의 상태”(The State of Publick Affairs),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들”(Envious Men)이다. 이 중에서 1730년 8월 9일 성찬식이 있던 날 행한 “시기하는 사람들”에서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다툼은 사적으로 신앙을 가로막는다. 마찬가지로, 다툼은 공적인 예배와 예식들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로막는다. 그런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중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다투고 시기하는 사람들 중에 계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들의 공적인 예배가 그리스도께 역접기 때문이다.”¹⁰⁸⁾

에드워즈의 사상에서 공적인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랑과 함께 거룩함이다. 물론 거룩함에 사랑이 포함되지만, 에드워즈는 이웃 사랑 이외에 윤리적인 바른 삶에 대해

104) Jonathan Edwards, “A Strong Rod Broken And Withered,” in *WJE* 25:327.

105) Jonathan Edwards, “The Way of Holiness,” in *WJE* 10:74. “그들이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리고 공적인 예배와 가정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한다 해도, 그리고 외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해도, 만일 그들에게 사랑이나 거룩함이 없다면 ... 그들이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적이고 살아있고 생기 있고 불멸하는 거룩함이 가장 절대적이고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전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106) Jonathan Edwards, “Duty of Charity to the Poor,” in *WJE* 17:375.

107) Edwards, “Charity and Its Fruits,” 142.

108) Edwards, “Charity and Its Fruits,” 110.

서도 강조했다. 예컨대, 그가 1731-2년경 어느 성찬식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성례에 참여한 사람이 공공연한 악에 빠진다면, 그들은 이 예식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이다.¹⁰⁹⁾ 설교 원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제목에서 이미 예배와 거룩한 삶의 관계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설교보다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설교는 1740년에 행한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이다. 이 설교의 중심 교리는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인 의무가 신앙에 있어서 외적인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다.”인데, 이것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윤리적인 의무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에드워즈는 우리의 신앙을 둘로 구분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직접 공경하는 것이다.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단연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에드워즈의 사상에 따라 순서를 정하면, 내적인 경외감과 사랑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며, 그다음으로는 참된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외적인 예배 행위 자체는 가장 중요하지 않다.¹¹⁰⁾

5. 결론 및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적 예배에 관한 에드워즈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에드워즈는 청교도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신학의 중심으로 삼았고, 이 사상은 그의 예배론에도 직결된다. 예배는 창조와 새 창조에 근거를 두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향유하게 하시는 데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창조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전달하심과 백성의 누림은 절정에 이르고 백성은 천상의 예배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 성도들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그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을 성도에게 전달하시고, 성도는 그것을 향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는 기쁨이다.

둘째, 에드워즈의 공적 예배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으며,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에게 자신을 전달하시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린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한다. 또한, 예배의 순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제시된다. 에드워즈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설교는 사람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린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다. 또한, 성도는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린다.

셋째 에드워즈는 성경과 상식에 근거하여 공적 예배를 순수하게 보존하기를 추구했다. 예배의 방식과 순서에 관해 로마 가톨릭과 잉글랜드 국교회의 예전들을 거부하고, 화려한 예배당 장식도 거부했으며, 성경에서 예배의 요소로 제시하는 요소들만을 공적 예배에 허용했다. 또한, 공적 예

109) Jonathan Edwards, “Appendix: Dated Batches of Sermons, 1730-1732, and Dated Sermons, January-December 1733,” in *WJE* 17:453.

110) Jonathan Edwards, “Mercy And Not Sacrifice,” in *WJE* 22:117-118.

배의 모든 설교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뿐 아니라, 에드워즈는 안식일에 관해서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토요일을 예배일로 정하지 않고, 구속사적 관점과 모형론적 해석을 따라 일주일 중 첫째 날인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에 관해서는 성경의 구체적인 제도가 없으므로 성도들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상식에 호소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에드워즈는 예배자의 자세에 관해 외적인 예배 행위와 규례보다 내적인 예배의 영을 강조했다. 에드워즈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본성의 원리를 갖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새로운 감각을 가진 지성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예배다. 반면에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위선이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는 “예배하는 척”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에드워즈에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공적 예배에 불참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공적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경건치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큰 죄다.

다섯째, 에드워즈의 공적 예배 신학은 거룩한 성도의 삶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내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은 성도의 일상의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본성이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재정립된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영혼은 자기 삶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에드워즈는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공적 예배에서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위선이라고 여겼다.

이와 같은 에드워즈의 예배론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회복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에게 통찰과 경고를 함께 준다고 본다. 우리는 예배의 방식을 고민하고 모색하기에 앞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교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깨우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진심으로 누려야 한다. 또한,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예배에 화려하고 감각적인 현대적 요소들을 가미하는 데에 재정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성경의 가르침과 상식에 따라 예배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추구해야 한다. 또한, 안식일에 여행과 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풍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드려야 한다는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자기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함과 의무 이행만을 추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예배하는 척’ 하는 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성찰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국교회의 예배가 어떤 형태로든 성경적인 예배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에드워즈의 예배론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본 소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예배로서의 성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그 밖의 예배 순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적인 예배에 대한 에드워즈의 사상에 관한 연구나, 에드워즈의 예배론을 한 세대 후 미국 복음주의 시대의 예배와 비교하는 연구도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안덕원,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배관과 21세기 한국교회 예배”, 『한국개혁신학』 17 (2005: 185-211).

최승현, “교인 48% ‘온라인 교회 만들면 참여’…목회자 60% ‘온라인 교회 인정 못 해.’” 뉴스앤조이 2021년 8월 20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22>.

Edwards, Jonathan. “A Strong Rod Broken And Withere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5: *Sermons and Discourses, 1743-1758*,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6: 312-330.

_____. "All God's Methods Are Most Reasonabl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4: *Sermons and Discourses, 1723-1729*, edited by Kenneth P. Minkem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7: 161-197.

_____. "All That Natural Men Do Is Wrong."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515-536.

_____. "An Humble Attempt."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5: *Apocalyptic Writings*, edited by Stephen J. Ste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77: 307-436.

_____. "An Humble Inquiry."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2: *Ecclesiastical Writings*, edited by David Hal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165-348.

_____. "Appendix B: Dated Sermons, January 1734-December 1738."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799-811.

_____. "Appendix: Dated Batches of Sermons, 1730-1732, and Dated Sermons, January-December 1733."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edited by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9: 447-458.

_____. "Charity and Its Fruit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8: *Ethical Writings*, edited by Paul Ramse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89: 123-398.

_____. "Christ's Sacrific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2: 592-604.

_____. "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edited by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9: 273-328.

_____.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8: *Ethical Writings*, edited by Paul Ramse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89: 403-536.

_____. "Continuing God's Presenc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390-417.

_____. "Diary."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759-788.

_____. "Duty of Charity to the Poor."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edited by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9: 369-404.

_____. "Envious Me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edited by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9: 101-120.

_____. "Fast Days in Dead Time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58-77.

- _____. "Glorious Grac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2: 388-399.
- _____. "God's Excellencie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2: 413-435.
- _____. "Hypocrites Deficient in the Duty of Prayer."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Peabody, MA: Hendrickson, 2005.
- _____. "Indicting Go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747-767.
- _____. "Lectures On The Qualifications for Full Communion in the Church of Christ."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5: *Sermons and Discourses, 1743-1758*,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6: 349-441.
- _____. "Life through Christ Alon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2: 519-532.
- _____. "Mercy And Not Sacrific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2: *Sermons and Discourses, 1739-1742*, edited by Harry S. Stou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3: 111-135.
- _____. "Misrepresentation Correcte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2: *Ecclesiastical Writings*, edited by David Hal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349-504.
- _____. "No. 474. Exodus 220:24-26."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5: *Notes on Scripture*, edited by Stephen J. Ste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571.
- _____. "No. 475. Exodus 25:23-40."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5: *Notes on Scripture*, edited by Stephen J. Ste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571-575.
- _____. "Of God The Father."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5: *Sermons and Discourses, 1743-1758*,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6: 142-155.
- _____. "Profitable Hearers of the Wor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4: *Sermons and Discourses, 1723-1729*, edited by Kenneth P. Minkem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7: 243-277.
- _____. "Sin and Wickedness Bring Calamity and Misery on a Peopl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4: *Sermons and Discourses, 1723-1729*, edited by Kenneth P. Minkem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7: 484-505.
- _____. "The 'Miscellanies,' no. 3."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12."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28."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448."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691."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ited by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 _____. "The 'Miscellanies,' no. 751."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ited by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 _____. "The 'Miscellanies,' no. 914."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ited by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 _____. "The 'Miscellanies,' no. 1028."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ited by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 _____. "The Duty of Harkening to God's Voic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2: 436-450.
- _____. "The Excellency of Christ."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560-594.
- _____.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of the Messiah,' Miscellanies no. 1068. 3,"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Online*, vol. 30: *Prophecies of the Messiah*, edited by Jonathan Edwards Center, <http://edwards.yale.edu/archive?path=aHR0cDovL2Vkd2FyZHMueWFsZS5lZHUvY2dpLWJpbi9uZXdwaglsby9nZXRvYmplY3QucGw/Yy4yOT02LndqZW8=>.
- _____. "The Importance of a Future Stat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2: 351-376.
- _____. "The Justice of God in the Damnation of Sinner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336-376.
- _____. "The Many Mansion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734-746.
- _____. "The Means and Ends of Excommunicati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2: *Sermons and Discourses, 1739-1742*, edited by Harry S. Stou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3: 64-79.
- _____. "The Perpetual and Change of the Sabbath."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edited by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9: 217-250.
- _____. "The Preciousness of Tim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243-260.
- _____. "The Torments of Hell Are Exceeding Great."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4: *Sermons and Discourses, 1723-1729*, edited by Kenneth P. Minkem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7: 297-328.
- _____. "The Way of Holines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2: 465-479.

_____.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Religious Affections*, edited by John E. Smit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59.

_____.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9: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 edited by John F. Wils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89.

_____.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1: *Typological Writings*, edited by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3.

_____. "They Sing A New Song."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2: *Sermons and Discourses, 1739-1742*, edited by Harry S. Stou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3: 224-244.

_____. "To a Singing Teacher, June 4, 1753."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596-597.

_____. "To Deacon Moses Lyman, May 10, 1742."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101-03.

_____. "To Deacon Moses Lyman, September 30, 1748."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251-255.

_____. "To Deborah Hatheway, June 3, 1741."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90-95.

_____. "To Sec. Andrew Oliver, April 12, 1753."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586-592.

_____. "To Sir William Pepperrell, November 28, 1751."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406-414.

_____. "To the Benjamin Colman, May 19, 1737."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_____. "To the Benjamin Colman, May 22, 1744."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144-145.

_____. "To the Reverend Benjamin Colman, May 30, 1735."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48-58.

_____. "To the Reverend Elnathan Whitman, February 9, 1743/4."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127-134.

_____. "To the Reverend Thomas Prince, December 12, 1743."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115-127.

_____. "To the Reverend William McCulloch, November 24, N.S., 1752."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ited by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8: 542-545.

- _____. "Undeserved Mercy."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1: 628-655.
- Kinnach, Wilson H.,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rmons: Jonathan Edwards' Art of Prophesying."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edited by Wilson H. Kin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2.
- Marsden, George. *Jonathan Edwards: A Lif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3.
- Raley, Matthew. "A Rational and Spiritual Worship: Comparing J. S. Bach and Jonathan Edward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2/3 (2019): 583-597.
- Rivera, Ted. *Jonathan Edwards on Worship: Public and Private Devotion to God*. Eugene, OR: Pickwick, 2010.
- Valeri, Mark. "Preface to the Perio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edited by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9: 3-44.